

성하마을 조성과 바깥 해자로서의 요나고 강

논을 매립해서 성하마을을 조성

호레키 연간(1751 ~ 1763)에 정리된 지지(地誌), 「운양대수록(雲陽大數錄)」에 따르면, 중세 때 이곳 호로마치는 스에쓰구고(촌)에 해당하며, 논밭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을 뒷받침하는 듯, 지표면 1.8m 밑에서 경작시의 흔적이나 논두렁 등이 발견되어, 이전에 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이 외, 미나미타마치에서는 옛 지표면에 자라나 있었던 갈대인지 부들인지의 땅속 줄기가 확인되고 있으며, 마쓰에 성하마을은 논이나 저습지를 매립해서 조성했다는 사실이 고고학면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.

바깥 해자로서의 요나고 강

요나고마치와 호로마치의 구획을 나누는 요나고 강은, 에도시대 초기 바깥해자로서 만들어진 인공하천입니다. 당초에는 축벽이 없이 마구 파 내려간 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축벽은 만들어진 시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, 현재의 호안(강이나 바다의 기슭이나 둑 따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)축벽 5m 안쪽에서 에도시대의 바깥 해자 축벽이 발견되었습니다. 쿄고쿠기(1634~1637)에 작성된 마쓰에 성하마을 평면도에 따르면, 바깥 해자의 강폭은 19 간(약 36m), 수심 4 척 (약 1.2m)으로 기재되어 있으며, 현재의 강폭(약 13m)보다 꽤 넓었던 것 같습니다.